

CONTENTS Vol. 93 · 여름 |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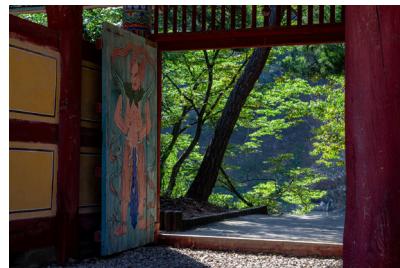
02	청운동 사계 글·박원자, 사진·원유자	17	가고 싶은 절, 만나고 싶은 스님 윤효진 삼선포교원 대원스님 도심 도량에서 고요와 머무름을 전하다
03	발행인 편지 정대련 사월부터 유월 초여름까지, 지혜와 자비를 담았습니다	20	불교와 여성 조민기 〈신여자〉 그리고 일엽 ‘내가 주인’임을 실천하여 도를 이루다
04	봄 사찰순례, 화엄선사 국형사 구룡사 조유예 변화무쌍한 마음을 들여다보는 재미	22	아기 부처, 엄마 보살 이예지 가족이 함께한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함께 기도하며 빛을 밝히는 여정
07	함께해 즐거웠어요 이지윤 열일곱 번째 나눔바자 ‘우리 잔치에 청운동이 시골벽적’	24	우바이 문화살롱 김영희 찾자리와 무재칠보시 재물이 없어도 일곱보시를 행하다
10	지리산 제다실습기 홍의경 뒹고 비비고 기다리며 다선일미의 세계로	26	불교여성개발원 이사·감사
12	지금, 여기 우바이 임순덕 2025 여성불자108인회 워크숍 보리산 자락을 물들인 우리의 향기	27	(사)지혜로운여성 이사·감사
14	108인 기획 인터뷰 전영숙 이순재 무량감로회 회장 나지막이, 따듯하게, 토닥토닥	28	개발원 소식
		31	산하기관 센터 소식
		34	회원동정
		35	재정 동참 현황



우바이예찬

2025년 통권 93호

발행인 정대련 발행일 2025년 6월 30일
 편집위원 남혜경, 김영희, 윤효진, 이예지, 조민기
 편집간사 최연지, 이지윤
 발행처 불교여성개발원·(사)지혜로운여성
 주소 03047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30길 20(청운동 103번지)
 전화 02-722-2101~2 팩스 0502-722-2000
 불교여성개발원 홈페이지 www.bwdi.or.kr
 지혜로운여성 홈페이지 www.wisdom2007.or.kr
 E-mail wisdom2007@daum.net
 은행계좌 국민은행 023501-04-193757 불교여성개발원
 ● 우바이는 여성 재가불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표지사진 : 조현숙(10차 108인, 전 불교사진협회 회장)

반가운 도반이 선뜻 들어설 듯한,
안성 청룡사 일주문.



소수서원 담장 아래에는 옛 宿水寺의 향기가

두 딸과 함께한 알프스 여행

초여름,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생일을 축하한다며
딸들이 효도여행을 준비했다.

가고 싶은 곳을 고르라기에 평소 가고 싶었던
이탈리아 알프스 돌로미터를 선택했다.

로마와 몇 도시를 거쳐 도착한 돌로미터는
기대를 배반하지 않았다.

가능할 수 없는 너른 품을 지닌 아름다운 알프스
에서 딸들과 보낸 며칠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1500미터 고지 호수 가에 무심히 피어 있던
야생화들이 바람에 흔들거리던 모습도 함께.

돌아오는 마지막 날 저녁, 파리 숙소에서 딸들이
장을 보아 간단한 생일상을 차려주었다.

그리고 몇 송이 해바라기를 건넸다.

엄마, 건강하게 우리 곁에 있어 줘서 고마워요.

해바라기 꽃을 샀네?

엄마는 우리 해바라기니까.

고맙다, 딸들!

글 박원자_ 불교전문작가, 5차 108인

사진 원유자_ 시인, 4차 108인

사월부터 유월 초여름까지, 자비와 지혜를 담았습니다

불법승 삼보님께 귀의합니다.

올봄 사월과 오월 자하문로 30길, 불교여성개발원 처마 밑 청운동 저녁 길에는 일곱 개 고운 LED 연꽃
등이 아기부처님을 맞으며 주홍빛 불을 밝혔습니다. 춘삼월 가평 청리움에서 피어오른 여성불자 108
인들의 반가움과 열정 가득한 워크숍의 상서로운 기운에 힘입어 사월 초파일 연등이 더욱 빛났습니다.
온 세상이 사월 벚꽃으로 가득한 때 효자동 청운동 길 따라 불교여성개발원에 들어서노라면, 부처님의
상담법 공부 열기가 후끈하고, 멀리 경남 하동 지리산 자락 차밭 내음 가득한 제다원을 찾아 회원들이
아홉 번 찾았 뒤어 귀하게 얻은 이슬차의 그윽한 향이 사무국에 가득했습니다.

동국대 운동장에서 조계사까지 이어진 장엄하고 아름다운 수많은 연등 행렬로 맑고 향기롭게 닦아진
길을 따라, 사랑과 희망 가득한 5월 5일 어린이날 거룩한 아기 부처님이 나투시니, 여성불자108인들은
관욕수 올리며 평화롭고 향기로운 세상을 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광명 지혜광명 가득
한 여성광장의 자립을 기원하며 오월 내내 온오프라인으로 108인과 지역주민을 위한 바자를 열어 마주
보며 웃고 서로 응원하며 함께함의 소중함을 누렸습니다.

유월 초여름 햇살이 따가워지는데 타슈켄트에서 시작하여 파미르고원 관문 후잔트, 두산베 넘어 우즈
베키스탄의 테르메즈, 사마르칸트, 사막의 오아시스 부하라를 돌아 다시 타슈켄트로 이어지는 실크로
드 따라, 혜충스님 모시고 불교 성지를 찾아 불교여성개발원 회원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칭에서는 Sakyadhita 세계 여성불자들과 만나 불교여성개발원의 수행 교육 봉사행을 나
누며 대한민국 여성불자의 위상과 지혜로움을 알렸습니다.

여기 우바이예찬 여름호에 우리 여성불자108인들의 자비함과 지혜로움을 가득 담아 전합니다. 108도
반님들의 기쁨과 보람을 함께 누리시기 기원합니다.~ 🌸

봄 사찰순례, 화엄선사 국형사 구룡사

변화무쌍한 마음을 들여다보는 재미

씩이 돋고, 산들바람이 불고, 수상한 생명들의 웅성거림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봄이 되면, 사람들 역시 자고 나면 하루하루 달라지는 세상을 구경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선다. 가까운 공원, 동네 산, 일상 속의 길목에서도, 혹은 멀리 차를 타고 지역축제나 여행지로 향하며 꽃구경을 간다.

불교여성개발원도 매년 봄과 가을에 사찰 순례를 떠난다. 올해 첫 순례지는 4월 12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화엄선사, 국형사, 구룡사 세 곳이었다. 특히 화엄선사에서는 명상문화원 개원식이 예정되어 있어, 주지 인광스님과 월정사 정념 스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뜻있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

이른 아침 여행기는 마음으로 길을 나섰다. 조계사 앞에서 출발해 압구정동과 죽전을 지나며, 회원들 모두가 버스 한 대에 옹기종기 앉아 가게 되었다. 반가운 얼굴, 같은 차수 분들, 원장님과 행사를 준비하신 분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고, 매일 만나도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 오랜만에 만났어도 매일 만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또 즐기도 하면서 그렇게 가다 보니 첫 행사장인 화엄선사에 조금 빨리 도착했다.

봄날, 절에서 마주한 얼굴들

창밖으로 보이는 '화엄선사'라는 화강암 표지석이 다소 낯설었다. 선방일까? 선사님이 계신 절일까? 절 입구부터 활짝 핀 흰 벚꽃이 마치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듯하다. 강원지원 회원들이 마중 나오셨고, 홀로 도착한 회원들과도 만나서 함께 이동했다.

행사 시간에 맞추기 위해 가까운 곳에 있는 전통 사찰인 국형사를 먼저 둘러 보았다. 입구를 지나자 가장 먼저 범종루가 눈길을 끈다. 좁은 전각 안에 사물(四物)이 촘촘히 배치된 모습에 익숙해서일까, 평지에 널찍하게 자리한 전각이 더욱 멋스러워 보였다. 이명숙 님의 설명을 들으며, 국형사의 보물인, 탄허스님 친필의 수광전 현판을 사진에 담았다. 금박으로 새긴 글씨가 힘차고 품격이 있다.

동서남북 5방위 산인 지리산, 묘향산, 계룡산, 치악산, 월산 가운데 동쪽은 치악산에 제례단을 만들었다는 동악단 안내판을 읽으며, 치악산이 동악으로도 불리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조선 정종의 딸이 마시고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우물도 둘러보았다. 한때는 생명을 살렸는데 지금은 자물쇠가 잠겨 있다.



시간에 맞추어 화엄선사로 향했다. 흰색 고운 천으로 날아갈 듯 승복을 입으신 인광 주지스님이 우리를 맞이하신다. 스타 스님 혹은 연예인 스님을 떠올리게 하는 한편,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 명상문화원을 개원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을지 생각해 본다. 그래서인지 인상이 또렷하게 남아있다. 피약별 아래 앉아 개원식 법문을 듣다 보니 집중이 흐트러지고, 주지스님과 정념스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법문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인공지능의 최첨단 시대에도 풀 수 없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명상문화원을 확장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가지가 부러질 듯 만개한 꽃그늘 아래 사찰에서 준비한 점심 식사와 공연이 이어졌는데, 인광스님의 옷매무새에 이어진 후속탄인가 보다. 악기연주와 가곡, 국악, 트로트까지 다채롭다. 노랫가락에 맞춰 마당 쪽에서 회원들이 살짝살짝, 덩실덩실 춤을 추고 대웅전 안에서 마주 보던 이들도 사랑살랑 몸을 흔든다. 이심전심 상춘객의 마음일까, 부처님이 계신 절에도 변화하는 세상의 자연스러운 모습일까?



강원도 인심을 보여주듯 큼지막하게 포장한 찰떡을 잔뜩 준비해 주신 한정화(9차 108인) 회원께 감사한 마음으로 떡도 먹고 공양도 마쳤다. 아쉽게도 정작 문화원에는 올라가 보지 못했다. 인파를 피해 늦게 공양을 하고 시간이 빠듯해서 그러기도 했지만, 관심과 정성의 차이일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명상문화원은 엠사이트(MSITE 명상, 고요함, 통찰지혜, 깨어 있는 의식, 무아의 행복) 힐링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한다.

용의 전설을 지나 사람의 이야기에 달다

식사도 하고 몸과 마음도 편안하게 버스를 타고 구룡사로 향했다. 입구에 다다르니, 언젠가 고생고생하며 치악산 등산하고 내려와서 안도의 숨을 쉬었던 그 절이 바로 구룡사였구나, 반가웠다.

개원식 행사와 사찰 소개, 그리고 원주의 지역사까지 친절히 설명해 주신 이명숙 님에 따르면, 절을 짓기 위해 연못을 메우려 하자 아홉 마리의 용이 나타나 산으로 올라갔고, 이들이 각각 여덟 개의 봉우리가 되어 절을 둘러싸고 있다고 한다. 그중 막내였던 눈먼 용은 왜정 때까지 이곳에 머물다가, 어느 장마철에 마침내 승천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절 마당에 올라서니 주지스님께서 다시 아홉 마리 용 이야기를 해주신다. 그러나 구룡사는 아홉 구(九)가 아니라, 절을 지키는 거북 구(龜)를 쓴다고 하셨다. 유신시절 호국사찰로서 범종을 조성했다가 종 위에 새겨진 49명의 이름 중 대통령 총격 이후 김재규의 이름이 지워진 것을 설명하시고, 종 치는 시간이 아닌데도 세 분의 원장님들이 타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

우리는 마치 수학여행 온 학생들처럼 스님을 따라다니며 스토리가 있는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부처님이 모셔진 선방에도 들어가 보고, 대웅전에 삼배하며 삼사를 돌아보는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일정의 마지막이자 보너스 코스로서 강원지원의 김옥주 회장님댁으로 이동했다. 1층 식당에서 보쌈에 막국수, 막걸리까지 푸짐하게 이른 저녁공양을 했다. 씩씩하고 씩씩한 네 명의 아들딸들이 어머니의 일을 돕는 모습이 따뜻하고 감동적이었다. 2층에 있는 천매(김옥주님의 호) 갤러리에 들어가니, 새와 꽃, 사군자 수목화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한지로 만든 인형과 신발, 공예품들, 전통 가구와 도록, 대한민국 훈장(전통 명장)도 보인다. 네 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지역사회 리더로서 수십 년간 봉사활동, 종교활동도 하고, 가게도 운영하고, 작품을 만들면서 대한민국 명장이 되기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을까? 인간의 가능성은 정말 고무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짧은 봄날에 참 많은 것을 경험했다.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자기소개와 각자의 소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갈 때마다 절은 비슷해 보여도 매번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해마다 또 가게 되는가 보다. 한 분 한 분 바쁘실 텐데 어떤 인연으로 같은 곳에 같이 갈 수 있었나 감사한 마음이 든다. 사찰 연구가처럼 구석구석을 자세히 알고 보는 것이 쉽지도 않고 꼭 그럴 필요도 없을지도 모른다. 순례하면서 장소와 때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일어나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재미가 진정한 순례라는 말씀이 생각난다. 이에 더해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다 보면 같은 곳, 같은 것을 보고 경험해도 각자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놓치는 것이 무엇인지, 안 본 것도 본 듯이 공감할 수도 있다. 그것이 사찰 순례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

열일곱 번째 나눔바자

우리 잔치에 청운동이 시끌벅적

지난 5월 16일과 17일, 여성불자 108인회가 해마다 마련하는 나눔바자가 있었다. 비구름 아래 시작된 첫날, 곳은 날씨였지만 마음만큼은 맑았다. 이들 동안 열린 바자는 준비한 이들과 찾아온 이들의 정성과 웃음으로 가득했다. 회원들의 진한 연대와 웃음의 풍경이 있기까지, 사무국은 며칠 동안 늦은 시간까지 퇴근도 잊은 채 분주히 움직였다. 차수별로 도착한 물품을 정리하고 자리를 배치하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손길들. 사무국의 준비는 단순한 판매를 위한 정돈이 아니었다. 오랜만에 함께할 반가운 지인들을 위한 따뜻한 맛이의 준비였다.

‘우리 부자 되려나 봐요’

첫째 날 아침, 예보된 대로 소나기가 억수처럼 쏟아졌다.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번쩍하는 가운데서도 바자는 빈틈없이 진행되었다. 거센 비도 막지 못할 만큼, 행사장은 이미 활기로 가득했다. 청운효자동주민센터도 함께 한 이번 바자는 주민센터 앞마당과 개발원 두 곳에서 동시에 열렸다. 행사 개막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에는 정문헌 종로구청장님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고, 최준영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동장님은 전날부터 현장을 함께 점검하며 응원해 주었다.

곳은 날씨에 당황할 법도 했지만, 회원들은 하나같이 싱글벙글한 얼굴이었다. “원장님 우리 부자 되려나 봐요~”라는 농담이 오갈 만큼, 오늘을 기다려온 얼굴에는 걱정도, 불평도 보이지 않았다.

바자 공간은 108인이 차수별로 기증받거나 준비한 물품을 이쁘게 진열하면서 눈길을 끄는 즐거운 호객 소리가 시끌벅적했다. 주민센터 앞 부스에는 4차 회원들이 준비한 맛간장과 생활용품, 7차 회원들이 마련한 순무김치와 장뇌삼, 다양한 차(茶)가 진열되어 있었다.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베트남 커피를 직접 내려주는 코너에는, 퍼져나가는 향에 이끌려 지나던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 섰다.

개발원 입구는 먹거리의 열기로 가득했다. 지글지글 전 부치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가 골목 끝까지 퍼졌다. 10차 회원들은 김치전과 부추전을 능숙하게 뒤집으며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옆에선 9차 회원들이 백 일 동안 숙성한 청굴청으로 만든 시원한 에이드를 내놓았고, 밀반찬과 숙인절미까지 더해 배도 장바구니도 묵직해졌다.



완판을 기록하며 후끈 달아오르다

먹거리 가득한 입구를 지나 1층에 들어서면, 1~3차 108인 회원들이 마련한 찻잔, 불상, 장식품 등이 방문객을 맞이하고, 11차 회원들이 준비한 된장과 연잎밥, 주방 식기, 가방과 모자 등 패션용품, 금강경 사구계(四句偈) 액자 등이 테이블 위에 풍성하게 펼쳐져 있었다.

1층 안쪽 마하실에서는 김인숙 전 원장님의 주얼리를 진열했는데, 바자를 시작하자마자 최단 시간 완판을 기록했다. “원장님 완판녀 등극!”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 환호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회원들이 열정적으로 판매에 나선 이유는 모든 수익이 기부로 이어지는 자비의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비를 기부로 잇는 따뜻한 순환의 에너지로 이곳을 가득 채웠다.

2층은 더욱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이영주 회장의 컬렉션과 함께 5차(이불, 고추장, 호롱지, 캐슈넛, 호두오일 등), 6차(수제비누, 건미역, 다시마, 메밀면, 액세서리), 8차(치약, 쿠션커버, 계란 장조림 등), 10차(꽃 봉투, 핸드크림 등) 부스가 줄지어 이어져 있었다.



각 부스 앞에서는 정겨운 말들이 오갔다.

“이거, 작년에 샀는데 너무 맛있어서 오늘 또 사러 왔어요.” 그분이 손에 든 건 고소한 캐슈넛이었다. 그 말을 들은 5차 노인자 회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고추장도 있어요. 우리가 매년 준비하는 인기 품목이에요. 찾는 분들이 참 많아요.”

10차의 한 회원도 상품 설명에 나섰다. “저희 10차에서는 꽃 봉투가 대표적인 상품이에요. 바자를 시작한 첫 해부터 꾸준히 만들어왔는데요, 인기가 정말 많아요. 보시할 때 쓰셔도 좋고요.” 이처럼 각 차수의 매대에는 정성껏 준비한 물품이 여러 해를 지나며 고유의 ‘시그니처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한편, 2층에는 5차에서 준비한 또 하나의 인기 품목인 이불 코너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었다. 그곳은 단연 발길이 끊이지 않는 부스 중 하나였다. 펼쳐진 이불 앞에서 사람들은 손끝으로 질감을 살피고, 무늬와 색을 들여다보며 한참을 머물렀다. 양경윤 회원이 설명을 건넸다. “이건 압구정 한 백화점에 들어가는 고급 이불이에요. 오늘이 1년 중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날이에요. 이날만 기다려온 분들이 많아요. 정가 대비 40% 싸

게 드리는 거죠.” 그러곤 살짝 웃으며 말을 보탰다. “이불 디자이너가 제 절친인데, 바자 소식 듣고 좋은 일에 함께하겠다며 흔쾌히 보내줬어요.”

이불에 시선이 잠시 머물던 사이, 바로 옆에서 유쾌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로 “이 계란 장조림, 아무 날에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소스로 말할 것 같으면~” 6차 강영자 회원이 판매한 스텡글 핀을 꽂은 8차 전영숙 회원의 유쾌한 코멘트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고, 이내 개발원 이곳저곳은 삼각핀과 핫핑크 핀으로 반짝반짝 꾸민 사람들로 가득 찼다. 바자는 그렇게 사람들의 얼굴과 마음에 생기를 더하며,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잔치로 피어났다.

한바탕 웃고 한 층 올라가 보니, 3층은 그윽한 차 향과 미술작품, 예향이 조용히 포개지는 공간이 되어 감각이 사유로 번져가는 정원 같았다. 예술가의 작품이 벽면을 채우고, 9차 김영희 회원의 다도 공간에서는 찻잔을 채우는 향기가 고요히 흘렀다. 작가가 직접 자신의 작품을 설명해 주는 시간은 그림 속 숨결을 곁에서 마주하는 특별한 경험이었다. 다도 시간은 찻물의 온기처럼 마음을 담으며 공간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안았다.



숫자는 틀려도, 마음은 맞았네!

찻잔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 다시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 바자 둘째 날은 전날의 비를 무색하게 하듯 맑고 짙은 햇살이 개발원 곳곳을 비쳤다. 이튿날 역시 입구서부터 1층, 2층, 3층까지 불거리와 먹거리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다문화 센터에서 준비한 쌀국수는 국물의 깊은 맛 덕분에 이른 시간부터 인기였다. ‘이 국물은 며칠에 걸쳐 진하게 우려낸 거’라는 설명에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감탄했다.

바자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계산이 안 맞아~ 하하하~ 다시~” 여기저기서 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표를 뒤적이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숫자를 맞춰보며 정산하는 손길 속에도 웃음이 있었다. “이건 언제 팔았지?”, “누가 이걸 두 개 사더라?” 기억을 더듬고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함께임’을 기억했다. 바자는 그렇게 끝을 향해 갔지만, 정산서 한 장 한 장에 쌓여 있는 건 물건의 가격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다. 모두가 함께 만들고 함께 나눈 시간이었다. 🌸

지리산 제다실습기

뒤고 비비고 기다리며 다선일미의 세계로



불교여성개발원에서는 월요일 오후마다 내 영혼을 들여다보는 맑고 고요한 수업이 열린다. 백경임 교수님이 지도하시는 ‘부처님의 상담법’ 시간이다. 명상 중 마음이 날뛰는 도거(掉擧)나 졸음에 빠지는 혼침(昏沈)에 빠지지 않고 묘한 성성적적(惺惺寂寂) 상태를 도와주는 것이 있는데 바로 맑고 그윽한 차다. 다선일미(茶禪一味)의 세계에 살짝 코를 담가본 우리들은 4월 21일 월요일 수업은 지리산으로 가서 제다 실습을 하기로 했다.

눈 부시게 푸른 날, 효월제다로 가다

제다 실습을 위해 하동으로 내려가는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해야 하는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이었다. 풀잎이 올라오는 세상에 돌아나는 꽃들도 만들레, 제비꽃, 냉이꽃, 봄맞이꽃 등 작디작고 검허하게 내려앉은 꽃들이었다.

우리가 간 곳은 효월 선생님(이기영, 한국차문화협회 이사)이 운영하는 고즈넉한 한옥으로 된 효월제다였다. 효월 명인은 1988년 4월에 쌍계사 스님들의 권유로 전통 구증구포(九蒸九曝) 제다법에 입문하여 복원했다고 한다. 효월 선생은 곡우전의 우전차를 만드는 어린 잎을 채엽해 놓으셨다.

명석에 풀어놓은 10킬로의 찻잎 더미는 하동 쌍계 지방의 햇살과 토양과 빗물과 사람이 협업해 놓은 노동집약적인 작품이었다. 커다란 가마솥 두 개에 나뉘어져 살청(殺靑)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가마불 온도는 350도 정도로 매우 뜨거워서 목장갑 서너 겹과 토시, 두건을 필수 착용해야 했다. 말 그대로 푸른 기를 죽이는 살청 작업은 커다란 산짐승을 잡아서 발골 하는 과정 못잖게 뜨겁고 치열했다. 건장한 체력과 병어리 삼룡이 같은 묵묵한 인내력과 차를 인지하는 고급 감수성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작업이 제다였다.

찻잎을 뒤은 후 하는 유념(揉捻) 작업은 한자어 그대로 주무르고 비트는 작업이다. 기계 유념과 수작업을 병행했는데 털털이(유념기)에 돌리고 명석에서 식히며 손으로 뭉친 잎을 털어주면서 묵은 잎이나 티끌을 골라 주어야 했다. 뒤고 꺼내기를 다섯 번 반복하는데 어느 정도 수분이 날아가니 가마솥 두 개에 시작했던 찻잎이 한 솥에 합쳐졌다. 이때는 뜸 들이듯이 가마솥의 불 온도도 낮추었다. 나중에는 100도에서 회전 뒤음을 하여 가향 작업을 한다. 마지막으로 80도 온도에서 50분을 말리는 위조(萎燥) 작업이 행해졌다. 이렇게 하



루가 꼬박 걸린 후에야 명석에 10킬로의 생찻잎이 2킬로의 보석으로 차탁마되어 고운 여인처럼 얌전하게 앉아 있었다.

이렇게 차를 만드는 작업은 감히 수행으로 불러야 했다. 불구덩이 앞에서 찻잎을 뒤는 도구는 주걱이 아니라 장갑으로 무장한 내 손이다. 무념무상이 되지 않으면 오랜 시간을 견뎌낼 수 없을 것이고 지루해하거나 손을 게을리 놀렸다가는 손을 데거나 귀한 찻잎을 재로 만들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아침 이슬을 밟고 나와 뉘엿뉘엿 땅거미가 질 무렵에야 만나는 차에 대한 염원이 없다면 할 수 없을 노고였다.

효월 선생은 ‘천상의 이슬차라는 천상의 풀잎에 앉은 이슬 같고 천상의 새가 흘리는 눈물 같은 차를 주셨다. 이것을 녹차 에스프레소같다고 하는 건 한참 못 미치는 표현이겠다. 천상의 이슬차는 녹차 2그램에 찬물 10그램을 넣어 6분 동안 냉침하는 차이다. 10cc 정도가 들어갈 은잔에 세 차례에 걸쳐 돌아가면서 한 방울씩 떨어뜨려주셨다. 이슬차의 색, 향과 아로마, 차 마시는 분위기, 지금의 몸 상태와 마음 상태가 모두 블렌딩된 차를 음미하느라 숨도 고요하고 길게 쉬었다. 딱 한 모금이라 차마 꿀꺽 넘길 수 없는 처지여서 입안에서 오래 차를 머금고 있어야 했다. 어느 새벽에 홀로 깨어나 혀를 딱 한차례 훑고 내려가는 이 차를 마신다면 진정 들뜨지 않는 환희와 어지럽지 않은 자유와 내리눌리지 않는 고요와 평화를 맛보리라.



차 한 잔으로 맑고 향기로운 지금에 달다

점심 후에는 지리산 반야봉 해발 800미터에 위치한 칠불사에 참배하러 갔다. 칠불사에는 부휴스님의 부도탑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주지 도응스님은 양택풍수 명당으로 꼽히는 칠불사의 입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며, 사찰 곳곳을 직접 안내해 주셨다.

칠불사는 다성(茶聖) 초의선사의 『다신전(茶神傳)』을 초록한 다도의 중흥지로 유명하다. 차인들의 성지가 되는 사찰이다. 초의스님을 알게 된 것은 학생 때 법정스님의 글을 통해서였다. 조선조 후기 초의선사가 『동다송(東茶頌)』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다서(茶書)를 저술하고 손수 차를 가꾸고 만들어 차문화를 퍼뜨렸다고 했다. 그 무렵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다산 정약용과 제주도에 귀양살이를 하던 추사 김정희는 초의선사와 같은 나이였는데 셋 다 차인으로서 교류하셨다. 불우한 시간 중에 서로 간에 선수를 알아본다는 건 얼마나 신명 나고 외로움이 치유되는 체험이었겠는가?

난분분 난분분 날리는 벚꽃의 꽃말이 겨우 ‘중간고사’였던 학생 때 나는 굴속 같은 도서관에서 졸음을 깨우기 위해 자판기의 백 원짜리 믹스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머리를 식히기 위해 법정스님의 수필집을 읽었다. 법정스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워딩인 ‘맑고 향기롭게’는 주로 차를 마시면서 쓰였다. 법정스님은 바로 이 지리산 칠불사의 운상선원에서 수도 정진하고 있는 스님에게서 운상차(雲上茶) 한 통을 선물 받았다고도 자랑하셨다.

스님은 때때로 신경질쟁이 같으셨지만, 한 잔의 향기로운 차를 대할 때 살아가는 고마움과 잔잔한 기쁨을 느끼신다고 하였다. 나 또한 비록 달이 담긴 샘물을 길어다 차를 우리진 못할지언정, 시판 삼다수를 끓여 만든 차 맛을 소중하게 음미하면서 도시에서 새벽이 열리고 밤이 깊어지는 시간에 다선일미의 세계에 조금씩 침잠해 갈 것이다. 🌸

2025 여성불자108인회 워크숍

보리산 자락을 물들인 우리의 향기

우리라는 단어가 이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힘! 아름다운 마음으로 보현행을 실천하기 위해 모인 불교여성개발원 108인의 날은 함께라서 더욱 즐거운 시간이었다. 다양한 삶의 이력을 지닌 이들이 부처님의 바른 법을 펴겠다는 다짐으로 부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구현하는 여성불자 108인회. 분별하지 않는 평등심으로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불교의 인본주의적 가치를 현실 속에서 실현하려는 노력과 마음을 함께 나눈다.

차수별 장기자랑으로 웃음꽃 만발

108인의 날 워크숍에 참석하는 회원들을 위해 압구정과 조계사에서 각 한 대씩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동네 첫차에 몸을 싣고 가니 내가 첫 번째로 도착했다. 행사 장소는 가평군 설악면의, 지혜를 얻는 산이라 불리는 보리(菩提)산 자락에 있는 청리움이었다. 천혜의 풍광이 병풍처럼 펼쳐진 그곳은, 일상의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던 멋진 곳이었다.



웃음꽃이 만발했던 청리움의 시간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동행이었다. 각 센터장의 활동 소개와 차수별 장기 자랑, 게다가 귀한 상품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여 모두 흐뭇하고 다정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경건하면서도 활기찬 장기 자랑 시간, 우리 나이에 자유롭게 표현하며 좀 더 잘하려고 몰입한 그 마음들이 아름답게 느껴졌다.

11차 108인회: 연꽃 등을 밝히며

9차 108인회: 여성불자 108인의 상생과 발전 (윤정로 부원장)

4차 108인회: '청운동 우바이 들의 순심' 시 낭송 (원유자 이사)

5차 108인회: 나이야 가라

10차 108인회: 명상 요가

6차 108인회: 낭랑 18세 노래와 율동

8차 108인회: 봄의 향기, 법 음의 향기

7차 108인회: 사바의 꽃, 성불하리라



다문화가족과 함께 한 아름다운 동행

이번 108인의 날 행사에는 처음으로 다문화 가족이 함께했다. 센터장을 맡은 노인자 선생님은 NGO 활동 경력 40여 년의 베테랑으로, 이번 참여를 통해 새로운 인연의 장을 열었다. 다문화 가족들은 잠시 일상을 벗어나 우리의 모임 자리에 초대되어 뜻깊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다. 사진을 함께 찍고, 모국의 친구들을 모처럼 만나 이야기꽃을 피우며, 아직 눈이 남아 있는 가평 청리움의 호숫가를 함께 거닐었다. 이 순간을 반갑고 기쁘게 맞이하는 그들의 모습이 참으로 인상 깊었다. 초등학교 아들과 함께한 한 어머니는 이날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이가 되었고, 그 따뜻한 기억은 모두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다.

'세계는 한 가족'이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실감한 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더욱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고, 그 감동 속에서 나 또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108인으로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과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할지를 겸허히 되새기며, 감사의 마음을 깊이 새기는 시간이었다.

2000년에 설립한 불교여성개발원은 여러 원장님의 지혜로운 리더십과 108인회 회원 한 분 한 분의 지극한 정성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이제는 어려운 시절은 다 지나가고, 우리의 역량을 활짝 피울 연꽃의 향기만 남아 있지 않을까. 함께 활동하는 공간과 회원이 있기에 사회적 회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덕행이 두텁게 쌓이고 있다. '교육, 수행, 봉사' 어느 분야이든, 자신이 선 자리에서 주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기쁘게 행한다면, 아름다운 우리 108인이 밝힌 등불이 오래오래 빛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나지막이, 따듯하게, 토닥토닥

- 이순재 무량감로회 회장

이번 호에는 8차 108인이자 소아청소년과 의사이며, 박귀원 선생님에 이어 무량감로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이순재 선생님을 소개한다. 선생님은 필자와 같은 차수이다. 해마다 바자가 열리면 치약과 태반 비누 등 생활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가져오시고, 선생님 덕의 예쁜 접시와 찻잔까지 내놓으신다. 그래서 우리 차수 회원들은 선생님이 안 계시면 8차는 바자에 얼굴조차 내밀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언제나 밝은 웃음소리와 함께 등장하시는 선생님은, 본인은 드러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인터뷰를 몇 번이나 사양하다가, 간곡한 요청을 못 이겨 어렵게 응해주셨다. 하지만 선생님 같은 분이야말로 우리 불교여성개발원의 든든한 버팀목이 아닐까? 5월 17일 토요일, 바자를 마치고 이지운 간사와 함께 선생님을 만났다. 이 간사는 바자 회원들이 갖 구워낸 부침개까지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려 주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전한다.

짧은 문구에서 부처님 말씀을 되새기며

저는 수원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 서울 서대문으로 이사 와서 지금까지 줄곧 살았어요. 가족 중에 특별히 불교와 깊은 인연이 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어머니나 할머니가 새벽에 불경을 읽거나 스님들이 집안에 왕래했던 기억은 없어요. 어머니는 조계사에 다니셨는데 절에 행사가 있는 날에는 노란 저고리에 흰 치마를 곱게 차려입고 절로 향하시던 모습이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 있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불교를 가까이할 기회가 없었죠. 대학에 들어가서는 성당을 나갔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서 일하면서부터 성당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썩 내키지 않았어요. 바쁘기도 했고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절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그때 저는 불교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부처님 말씀대로만 살면 이 세상에 전쟁도 없고 얼마나 좋겠니?”

수년 후 저는 근무하던 병원을 나와 신월동에 개업했어요. 하루는 예전 병원에서 저랑 같이 일하던 간호사가 찾아와서 제 손에 『지장경(地藏經)』을 놓고 가더군요. 그 후로도 종종 점심에 냉면도 해다 주고 부처님 이야기도 나누면서 우리는 도반이 되었지요. 그 도반을 따라서 정릉의 한 절에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같은 절에 다니고 있어요.

저는 낮에는 병원에서 환자를 보고, 저녁이면 집안일을 하느라 하루가 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요. 그래서 남들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수행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 개발원에서 새벽에 『금강경(金剛經)』기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동참하고 싶지만,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요. 대신 저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와 같이 짧고 명료한 부처님 말씀을 좋아해요. 늘 가슴에 새겨서 매 순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는 유독 짧은 글귀가 가슴에 와닿아요. 광화문을 지날 때면 교보빌딩에 걸려 있는 짧은 글귀에 눈길이 머물곤 해요. 그래서 불교와 무관한 글도 산문보다는 시를 더 좋아합니다. 특히 나태주 시인의 시를 좋아하고, 김용택 시인도 좋아해서 몇 해 전 지인들과 함께 그분의 집을 방문한 적도 있어요.

자녀와 환자와의 공감법

오래전 일이지는 하지만 혼수상태로 며칠을 보낸 아이가 깨어나서 한 말이 생각납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이 결핵성 뇌수막염 같은 병에 많이 걸렸어요. 그때는 요즘처럼 좋은 약이 없어서, 대개 3일 정도 혼수상태로 있으면 살아날 가망이 없었어요. 뇌수막염에 걸린 한 아이가 아마 5일쯤 되었을 때였는데, 갑자기 눈을 뜨고 살아났어요. 모두 기적이 일어났다고 기뻐했죠.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물가에서 할아버지하고 놀았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집에 가라고 해서 왔어.”

저는 지금도 종종 그 아이의 말을 떠올리며 죽음이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곤 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따르며 꾸준히 수행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돌이켜보면, 제 부모님은 공부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지금은 없어진 서대문국민학교에 다녔는데, 당시 근처에는 인기가 많은 학교 두 곳이 있었고, 그 학교들은 학생 수가 많아 수업을 나눠 진행할 정도였지요. 반면 서대문국민학교는 입학생 수가 많지 않았고, 선생님과 부모님도 공부를 강요하지 않아서 학교





생활이 항상 즐거웠어요. 운동장도 넓고 큰 등나무가 늘어선 아름다운 학교였는데, 넓은 교정을 쏘다니며 매일 신나게 놀았죠.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동네에 살던 친구 어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와 과외를 함께하자고 했어요. 우리 집안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는데 그분의 제안으로 친구와 잠시 과외를 받게 되었고, 그 덕분에 경기여중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이후 경기여고를 거쳐 의대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공부하라고 강요를 받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저도 네 자녀 모두에게 공부를 강요하지 않고, 자식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편이에요. 제 둘째 딸이 영화 촬영감독이에요. (선생님의 둘째 따님은, 제목만 들으면 알 만한 다수의 영화 제작에 참여하고, 작년에는 제주 해녀들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마지막 해녀들'을 촬영한 조은수 촬영감독이다. 세계 영화산업에 공헌한 촬영감독에게 현정상을 수여하는 피에르 앙제뉴 트리뷰트에서 올해 차세대

촬영감독을 조명하는 스페셜 인커리지먼트 수상자로 선정됐다. 조은수 감독은 미국 극작가협회에서 주는 상을 받은 적도 있는 한국 영화계의 재원이다.)

중학교 때 '노래로 배우는 영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으며 영어 공부를 하더니 느닷없이 영화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말겠지, 하며 듣고 지나쳤는데, 고3이 되자 한예종을 가겠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그런 학교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정부에서 정식 학교로 인정을 안 해줬지만, 본인이 좋다니 어떻게 말려요? 첫 작품은 셋째와 넷째, 나 이렇게 세 사람이 전철을 타고 가는 장면을 찍었는데, 뭐가 잘 안 됐다고 계속 전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루 종일 찍었어요. 그 후로도 필요하면 자주 동원이 됩니다. (웃음)

수의사 하는 큰딸이나 신장내과에서 일하는 셋째 딸, 막내인 아들도 마찬가지로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기다려 주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면 갈팡질팡 헤매기도 하지만 결국은 제자리를 찾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을 앞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병원에서 진료 볼 때도 비슷해요. 가벼운 감기 증세가 있거나 예방주사를 맞으러 오는 환자 중에 어르신들이 많아요.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서러운 일을 당하거나 외로울 때 이걸 토로할 데가 마땅치 않아 답답하세요. 진료가 끝났는데도 문을 나서지 못하고 이야기를 이어가려는 분들이 적지 않죠. 저는 그럴 때 거의 다 들어드리는 편이에요. 가끔은 다음 환자가 기다리다 못해 문을 열고 들어오기도 하죠. 저라도 들어드리지 않으면 이분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 건강도 좋아진다고 믿습니다. 🌸

도심 도량에서 고요와 머무름을 전하다

- 삼선포교원 대원스님

서울 성북구의 조용한 주택가 골목, 익숙한 도심 풍경 속에 낯선 형상의 건물 하나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멀리 경주에서나 볼 수 있을 듯한 석탑,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면 그 탑은 단순한 장식이 아닌 법당 자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곳은 바로 삼선포교원이다. 그리고 그 법당 안에서 플루트를 불고 있는 스님이 있다. 비구니 대원스님이다.

삼선포교원은 경주 분황사의 모전석탑(模塼石塔)을 확대 재현한 독특한 건축물이다. 1983년 3월에 준공된 이 도량은 전통 공예가 김영림 선생이 직접 디자인하고 구워낸 약 7만 장의 벽돌(전, 塼)을 쌓아 완성한, 한국 현대 불교 건축사에서 보기 드문 사례이다. 외형은 석탑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그 내부는 정갈한 법당이다.





1층은 석굴암의 돔 구조와 16개의 감실로 꾸며져 마치 작은 석굴암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준다. 2층에는 아미타 삼존불과 함께 300여 관세음보살 부조가 후불로 장엄하게 모셔져 있는데, 그 아름다움에 감탄을 금치 못하겠다. 또한 건물 상부에는 신라 석탑이 올려져 있어 전탑과 석탑이 조화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최초의 통학 강원인 삼선승가대학

삼선포교원의 또 다른 특별함은 교육의 전통에 있다. 1978년, 법현 지광스님과 연담 묘순스님의 원력으로 삼선승가대학이 개원되었다. 강원에 갈 때를 놓친 스님들, 혹은 출가한 스님들이 일반 대학도 다니면서 불교 공부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학이 가능한 최초의 강원이었다. 그러나 2014년 삼선승가대학은 문을 닫게 되었고, 묘순스님의 '부처님의 정법을 바르게 전하며 처음 발심한 마음이 퇴전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먼저 배운 사람의 자세'라는 모토를 전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불교 교육기관인 삼선불학승가대학원을 설립하였다.

삼선포교원은 포교의 장이자 교육의 장이기도 한 것이다.



대원스님은 묘순스님의 상좌로, 진명스님, 정호스님과 함께 '블루로터스'라는 이름의 연주 팀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처음 법당을 들어갔을 때도, 그다음에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연주 소리가 들렸다. 스님에게 음악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음악은 마음의 언어입니다. 플루트의 맑은 소리는 수행 중의 고요함과 닮아 있습니다. 플루트로 호흡과 마음이 하나 되는 순간은 수행의 또 다른 길입니다."라는 스님의 말처럼, 스님의 연주를 들으며 법당 안에 앉아

있으니 수행의 또 다른 길임을 알 수 있었다.

밴드와 유튜브로, 일상에서 다가가는 불법

그런 스님이 최근 <삼선고무신>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삼선고무신>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신는 슬리퍼에서 착안했다. 집 앞 편의점을 갈 때 슬리퍼를 신고 가는 것처럼 가볍고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불교 콘텐츠가 되었으면 하는 스님의 바람이 담겨 있다. 채널에서는 불교박람회, 연등회, 부처님오신날 등의 이야기부터, '내가 주지 스님이라면' 같은 위트 있는 주제까지 넘나든다. 진담과 농담 사이에서, 불법이 사람들 곁에 더욱 자연스럽게 머물렀으면 하는 스님의 바람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한 이야기를 해주셨다.

"저는 법당이 엄숙하고 경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프롬빌리지에서 탁났한 스님의 법문 현장을 보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멧혔어요. 탁났한 스님이 법문을 하시는데 꼬마가 와서 스님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장난을 치고, 심지어 스님 무릎에 눕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스님은 그저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자 꼬마 아이는 무언가를 알아차린 듯 머쓱한 표정으로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죠. 전 그 일 이후 법당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수행은 고요 속의 깨달음이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여백이지요."

"요즘은 너무 많은 정보와 소음 속에서 '머무름'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수행은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수행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마음, 환자를 돌보는 손길, 바쁜 일상 속에서 문득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그것이 곧 선입니다."

스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돌아 나오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너무 바쁜 일상에서 정작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는 사람들에게, 삼선포교원과 대원스님은 말없이 손을 내밀어 주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가 몰랐던 사이, 이미 수행은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



〈신여자〉 그리고 일엽

‘내가 주인’임을 실천하여 도를 이루다



우리 불교의 역사 속에서 여성을 떠올릴 때, 나는 곧장 일엽스님이 생각난다. 출가 전, 두 번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화려한 연애 스캔들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스님은 입산 후 27년 만에 〈청춘을 불사르고〉라는 책을 세상에 내놓으면서 또 한 번 화제의 중심에 섰다.

출가하기 전, 시인이자 문학가이며 기자였던 스님은 ‘정조는 움직이는 것이다’ 사랑이 있을 때만 정조가 있다’는 당시로서는 경천동지할 혁명에 가까운 주장을 펼쳤던 여성운동의 기수였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삶을 사랑했던 스님은 불교를 만나며 새로운 세상을 찾았다. 스님을 불교로 이끈 사람은 바로 불교신문사 사장과 동국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연인 백성옥 박사였다.

일엽스님의 본명은 김원주로 1896년 목사 아버지의 외동딸로 태어나서 선교사가 만든 학교에 다녔고 이화학당을 졸업한 후 짧은 일본 유학길에 올랐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아버지까지 모두 잃고 홀로 세상에 남겨진 스님에게 ‘외로움’은 평생을 함께할 한 몸이나 다름없었다. 그래도 하늘은 무심하지 않아서 꽃다운 나이의 스님 앞에는 헌신과 사랑을 바치는 인연이 나타났다.

스물세 살, 스님은 스무 살 차이가 나는 아버지뻘의 연희전문학교 교수와 결혼했다. 어린 아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남편 덕분에 스님은 두 번째 일본 유학을 할 수 있었고 도쿄 유학생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 인사였던 춘원 이광수를 만나 ‘일엽(一葉)’이라는 필명을 선물 받았다.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스님과 춘원 이광수의 핑크빛 로맨스에 대한 소문이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유학 시절, 스님은 춘원 이광수를 연모하던 허영숙 여사(춘원 이광수의 부인, 한국 최초로 산부인과를 개원한 여의사)와 친구였고, 여사를 대신하여 연애편지를 대필해 주곤 했다. 덕분에 춘원 이광수와 허영숙 여사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편지를 쓴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춘원 이광수는 그 문장에 감탄하였고 스님을 만난 후 필명을 선물한 것이었다. 스님과 허영숙 여사의 우정은 출가 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두 번째 유학을 통해 평생의 필명과 우정을 얻은 스님은 귀국 후 최초의 여성잡지 〈신여자〉를 창간하며 본격적으로 여성운동에 뛰어 들었다. 그러나 재정난으로 인해 〈신여자〉는 4호 발간을 끝으로 폐간되었고, 이 무렵 이혼한다. 이혼에 대한 세간의 비난이 쏟아졌으나 스님은 여성 특히 이혼녀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 사자후를 외치듯 당당히 이렇게 말했다.

“애정 없는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김일엽이라는 이름 석 자가 무엇이라고

이혼 후 스님은 거침없이 뜨거운 연애를 이어갔다. 스님은 만나는 남성에 대해 전혀 감추지 않았기에 언제나 스캔들을 몰고 다녔다.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면서 스님은 쉴 새 없이 글을 발표하고, 연설과 인터뷰를 했다. 그러던 중 수덕사에서 만공스님의 법문을 듣고 크게 발심하였고, 그 후 불교 잡지에 문화 관련 원고를 기고하면서 차츰 불교를 공부하며 점점 빠져들었다. 불교의 가르침 안에는 목사였던 아버지의 설교에서 찾지 못했던 진리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었다.

최고의 스승이자 동시에 연인이었던 백성옥 박사와의 만남으로 불교에 대한 스님의 이해는 더욱 깊어졌다. 하지만 깨달음을 찾기 위한 출가와 수행이라는 벽 앞에서 두 분은 이별할 수밖에 없었다. 눈부신 사랑과 가슴 아픈 이별을 통해 지고지순의 오욕칠정을 경험한 스님은 불교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때 스님은 재혼하였는데 그 상대는 바로 ‘하운실’이라는 이름의 스님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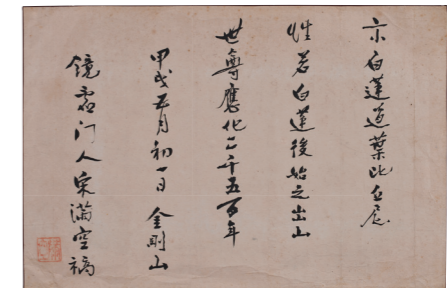
당시 스님은 개신교의 목사 부인들이 활발히 전도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불교에서도 포교를 위해 여성들, 부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많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스님의 이상과 달리 결혼 생활과 수행을 병행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이에 스님은 마침내 큰 발심으로 만공스님이 계신 덕숭산에 입산하여 삭발한 뒤 견성암에서 입승직을 맞아 장좌불와하며 치열하게 수행한 끝에 만공스님으로부터 인가받아 ‘전법계’를 받는다.



일엽자에게 회시(回示_회답)

일엽이 연꽃처럼 되었고
성품도 백련과 같으니
도를 이루는 비구니가 되었도다.

갑술년(1934년) 3월 초2일
월면 만공



일엽스님은 스승 만공스님의 뜻을 이어받아 30년 동안 산문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27년 동안 절필하며 세상에 대한 인연을 잘라냈다. 하지만 스님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은 계속되었고,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와 연관 지어 수덕사를 비구니 사찰로 오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스님으로 인하여 출가하는 사람 또한 많았고 불교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도 많았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일엽스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두어라, 김일엽 이름 석 자가 무엇이라고!”

포교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이름 석 자가 어떻게 불려도 상관없다는 스님의 말씀은 대장부의 사자후이자 흔들림 없는 수행자의 자신감처럼 들린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이름 석 자 앞에서 파르르 떨지 않고 스님처럼 여여하고 당당할 수 있을까.

가족이 함께한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함께 기도하며 빛을 밝히는 여정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겹친 올해의 봄날은 유독 따사로웠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불자들의 합창 소리가 도심에 물들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을 담은 연등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지난 4월 26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는 화려하면서도 경건한 연등회가 열렸다. 동대문에서 시작해 조계사까지 이어지는 그 길은 일상의 도심 거리가 아니었다. 연등을 밝히는 이들이 함께 걷는 그 여정은, 서로의 마음을 밝히고 위로하며 인연을 나누는 순례와도 같았다.

연등은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면 더욱 따뜻하게 다가온다. 어둠을 밝히는 작은 빛, 중생을 향한 자비의 손길, 그리고 각자의 마음속에 피어나는 희망의 등불. 연등을 들고 걷는 사람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평온하고 환했다. 저마다의 사연, 저마다의 소망을 품은 연등들이 거리를 물들이고 있었다.



아이와 함께 걷는 불빛의 축제

이번 연등회는 어린이날과 겹친 만큼, 아이들이 주인공이었다. 재작년 동자승 체험을 하며 처음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은 '동자승 가족'이 마음을 모았고, 한 자리에서 부처님 말씀을 기억했다. 짧은 삭발, 어린 승복, 합장하는 작은 손. 그 모든 것이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불교의 시작점에서 부처님 곁에 머물던 동자승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아이는 "마음이 조용해져요"라고 말하며 처음으로 '마음'이라는 단어를 자신의 언어로 꺼냈다. '절'이라는 공간을 단지 낯선 종교의 장소가 아닌, 마음을 가다듬고 나를 들여다보는 장소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아이와 함께 참여한 연등회는, 축제를 넘는 감동이었다. 무엇보다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특별했다.'

동대문에서 출발하는 연등행렬이 시작되자, 아이들은 각자의 등이 꺼지지 않도록 조심스레 걸었다. 작은 손에 든 연등을 꼭 잡고, 바람에 흔들리는 등을 바라보며 아이들은 신중하게 한 발 한 발 걸었다. 처음에는 낯설고 복잡하기도 했지만, 이내 우리는 그 속에서 작은 리듬을 느꼈다. "나무아미타불"의 염송이 울려 퍼지고, 법고 소리가 행진을 이끌었다. 아이는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합장하고, 때때로 염불을 따라 외었다.

아이들은 부처님의 이름을 조용히 읊조리기도 하고, 서로의 등을 바라보며 "네 등이 더 예쁘다" "내 등은 엄마랑 같이 만들었어"라며 자랑했다. 그 소박한 말들 속에는 '함께'하는 즐거움과 '나누는' 기쁨이 깃들어 있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우리는 눈앞의 불빛만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다시금 확인했다. 그것은 한 편의 기도였고, 가족이 함께 올리는 하나의 연가였다. 종로의 거리는 평소보다 더 밝고 환했다. 연등의 불빛이 거리 전체를 물들였고,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에도 따뜻한 등불이 비쳤다. 어떤 이들은 조용히 걷고, 어떤 이들은 노래를 불렀으며, 또 어떤 아이들은 손에 든 연등을 흔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그 풍경은 마치 이 세상이 잠시 고요한 정토가 된 듯한 느낌이었다. 아스팔트 위의 행렬, 그곳에는 다툼도, 분노도, 분열도 없었다. 오직 평화와 연대, 그리고 연등처럼 조용히 타오르는 사랑만이 있었다.



'할머니가 건강하시기를 기도하는 등이에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조계사에 도착했을 때였다. 수많은 연등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대웅전 앞마당에 모인 사람들 사이로 바람이 불며 등불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조차 마치 연꽃이 춤추는 듯 고요하고 아름다웠다.

아이들은 조계사에 들어서자마자 자신이 만든 작은 연등을 높이 들었다. "이건 할머니가 건강하시길 기도하는 등이에요."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 어린 마음속에도 기도와 바람이 자란다는 것이 놀랍고, 또 몽클했다. 연등 하나하나에 이름을 써넣은 가족도 있었고, 어떤 아이는 색종이로 만든 연꽃을 등에 붙여 '꽃등'을 만들었다며 자랑했다. 그 모습은 하나의 축제였고, 동시에 서로를 향한 존중과 사랑이 가득한 잔치였다. 마치 부처님이 우리 곁에 함께 앉아 아이들의 등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연등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아이는 피곤했는지 조용히 잠들었다. 연등을 품에 안고 자는 모습은 마치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이 어찌나 평화롭고 고운지, 나도 모르게 그날의 모든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동자승 체험, 연등 만들기, 거리 행진, 조계사에서의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시간을 함께한 우리 가족. 그렇기에 이날의 체험은 단지 하루의 추억이 아니었다. 모든 불자 가족이 불교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계기였고, 아이의 마음에 자비와 성찰이라는 씨앗이 심어진 날이었다.

연등회는 단지 종교 행사가 아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빛의 메시지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연대하는 마음,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작은 실천. 그런 의미에서, 연등 하나를 들고 걷는 행위는 단순히 '참가'가 아닌 '참여'이며, '동참'이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빛을 내는 그 여정에서 우리는 불교의 핵심 정신을 마주한다.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우리는 다시 이 길을 걸을 것이다.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어도, 이 경험은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아이도 자신의 가족과 함께 이 길을 걸으며, 오늘처럼 연등을 들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길 바란다. 🌸

찾자리와 무재칠보시

재물이 없어도 일곱 보시를 행하다



차 전문지 편집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차에 관한 온갖 배움을 구하며 차의 세계를 넓혀가면서 깨달은 것은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운 것이 차'라는 사실이었다. 차 자체에 대한 깊이도 따라잡기 어려웠고, 도자기, 다식, 다화, 복식, 다실, 향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까지 아우르는 끝 모를 심연 같은 것이 차의 세계였다.

그러나 수십 년 이어온 끝없는 배움과 거룩한 낭비의 연속선에서, 나의 분수를 지키려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다실 가득한 다구와 온갖 세계의 차들, 한복을 비롯한 다양한 차 관련 기물과 서적들. “나는 무엇을 위해 차를 하는가?” “혹시 걸땀만 든 것은 아닌가?” 하는 막연한 질문으로 자괴감이 들 때도 많았다.

그러던 중, 선원의 규범을 차로 정한 백장회해 선사의 『선원청규(禪院淸規)』를 두 번 수강하면서 비로소 차가 바로 불법의 수행이며, 평상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수행임을 알게 되었다. 왜 차를 마셔야 하는가에 이은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차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게 된 것이다. ‘차 한잔으로 자신을 점검하며, 온 마음을 다해 보시(報施)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내가 찾은 차의 의미였다. 무엇보다 ‘무재칠보시(無財七報施)’를 알게 되면서, 자비의 마음을 담은 차 한잔이 진정한 보시의 실천임을 알게 되었다.

차는 생활 속 수행

차는 지금 이곳에서, 정성을 다해 우린 한 잔의 차를 나 자신과 상대에게 올리는 일이다. 찾자리에서 요구되는 가장 큰 덕목은 환대와 고요함이 있는 정갈함이다. 먼저 주변의 정화로, 차실을 정갈하게 청소하고 향을 피워 공간을 깨끗이 한다. 오늘 대접할 분들과 계절, 그리고 찾자리의 주제 등을 고려하여 차와 도구를 준비하고, 꽃을 꽂아 계절감을 더한다. 차에 어울리는 다식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오늘의 찾자리를 대변할 글귀나 그림을 준비해 둔다. 그리고 단정한 복장에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그분을 기다린다. 그들이 오면 미소 띤 얼굴로 맞이하고,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한다.



가급적 말없이 차를 우리고, 차를 대접한다. 차에는 차만의 규칙과 법도가 있어 이를 알고 있어야 비로소 고요한 찾자리가 형성된다. 주인과 격이 한마음으로 조화를 이루는 순간이 최고의 찾자리이고, 마지막 배움까지 허리 굽혀 존경의 예를 다하는 것이 다도이다.

“차는 생활 속 수행이다.” “차는 작은 것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알게 되고 계절을 통한 자연의 맛을 알게 되

며 자연에 순응하게 된다.” 등 많은 말씀이 무재칠보시(無財七報施)의 하나하나에 담겨 차의 진정한 모습을 가르치고 있었다.

사실 나는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른다. 어릴 때 엄마가 단주를 채워주면서 “관세음보살님을 외라”고 하여 그저 단주를 돌리면서 관세음보살을 습관처럼 부르며 지냈다. 또 어느 스님께서 “복혜쌍수(福慧雙修), 즉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고 하여, 처음으로 ‘보시’를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는 보시는 자신의 것을 다른 이에게 나누는 것으로, 자비심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수행이며, 탐욕을 줄이고 이타심을 기르는 방법이고, 지혜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였다. 또한 보시는 공덕을 쌓고 번뇌를 없애며,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의 시작이자 완성’이라 하였다.

보시에는 물질적 나눔을 주는 재보시(財布施)와 진리의 가르침을 나누는 법보시(法布施), 두려움을 없애주는 위로, 용기, 보호를 주는 무외보시(無畏布施)가 있고 특별히 재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무재칠보시(無財七布施)가 있다고 했다.

그 중 무재칠보시는, 재물이 없어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비심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누구나 행할 수 있는 일곱 가지 보배로운 보시라 하였다.

아하! 차를 하는 기본자세가 바로 무재칠보시였다. 찾자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찾자리에 함께할 이를 맞이하는 모습, 그리고 차를 우려내어 내어놓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무재칠보시의 일곱 가지 행이 스며 있었다. 긴 세월의 물음이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되었다.

‘무재칠보시는 차인의 기본자세이다.’

무재칠보시(無財七布施)

어떤 이가 석가모니를 만났습니다.

“저는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은 네가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남에게 줄 것이 있어야 주지 될 판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느니라. 아무 재산이 없더라도 줄 수 있는 일곱 가지는 있는 것이다.

첫째는 화안시(和顏施) :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이요, 둘째는 언시(言施) : 말로서 얼마든지 베풀 수 있으니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부드러운 말 등이다.

셋째는 심시(心施) :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을 주는 것이다.

넷째는 안시(眼施) : 호의를 담은 눈으로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이요,

다섯째는 신시(身施) : 몸으로 때우는 것으로 남의 짐을 들어준다거나 일을 도우는 것이요,

여섯째는 좌시(座施) : 자리를 내주어 양보하는 것이요,

일곱째는 찰시(察施) : 굳이 묻지 않고 상대의 속을 헤아려서 도와주는 것이다.

네가 이 일곱 가지를 행하여 습관이 붙으면 너에게 행운이 따르리라.”



정대련
원장
6차 108인
동덕여대 아동학과 교수



이영주
부원장, 108인회 회장
7차 108인
이영주컬렉션 대표



노인자
부원장
5차 108인
종로우수협회 대표



임순덕
부원장
5차 108인
NNGO자비비니르니수레곤 재주



남동현
부원장
6차 108인
전영문고등학교 교장



피상순
부원장
3차 108인
우리사랑정신과 원장



정대련
이사장
6차 108인
동덕여대 아동학과 교수



고은자
가족지원센터장
10차 108인
전평택남부노인복지관 관장



최혜경
수익사업단장
2차 108인
정법신행회 회장



양현정
교정교회센터장
9차 108인
도봉방학가림어린이집 원장



노인자
다문화행복가족센터장
5차 108인
종로우수협회 대표



김영희
명상리더십센터장
9차 108인
정명현 대표



이순재
부원장
8차 108인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형은
부원장
8차 108인
사카디테크리아 공동대표



윤정로
부원장
9차 108인
전 카이스트대 교수



김여주
부원장
10차 108인
성신여대 명예교수



이해남
부원장
11차 108인
전상해한글학교 설립자



**지원장
차수장**



김선숙
불교여성연구소장
5차 108인
마음의과학연구소 소장



강영자
생명존중운동본부장
6차 108인
조계사 의료팀장



송은주
위즈덤합창단장
11차 108인
위즈덤합창단 단장



이영미
지혜아카데미 대표
6차 108인
(주)세미성 대표이사



김진
이사
2차 108인
연세대 명예교수



김수현
부산지원장
2차 108인
BTN 부산지사장



김옥주
강원지원장
7차 108인
천매갤러리 대표



이정숙
대구예비지원
1차 108인
음식디미방 대구지부장



정진희
1-3차 차수장
3차 108인
동국대 미래융합대학 강사



황외숙
4차 차수장
4차 108인
전서울교사불자연합회회장



김지영
5차 차수장
5차 108인
다도 전문가



이정호
이사
2차 108인
한국표현예술심리상담협회·수련감독치료사



손경수
이사
3차 108인
김인과 원장



박종덕
이사
5차 108인
Space 해인스튜디오 소장



김점란
이사
6차 108인
전봇다의대화 소장



정은희
이사
6차 108인
골드금거래소 부대표



안기순
이사
8차 108인
약사



김양희
6차 차수장
6차 108인
성악가



황순연
7차 차수장
7차 108인
대한국자연생태운동공원
중앙연합회 임원



전영숙
8차 차수장
8차 108인
연세대 중국연구원 연구원



양정희
9차 차수장
9차 108인
전봉은사신도회 감사



고은자
10차 차수장
10차 108인
전평택남부노인복지관 관장



정철재
11차 차수장
11차 108인
도시출판 심학 대표



이영희
이사
8차 108인
사카디테크리아 운영위원



이호욱
이사
8차 108인
전위즈덤 합창단 단장



황경자
이사
8차 108인
전위즈덤 합창단 단장



김숙애
이사
9차 108인
전인천석정중학교 교장



인영
이사
10차 108인
왕궁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조재란
이사
10차 108인
대구경상고등학교 영어교사

이사



손재현
이사
2차 108인
동국대체육교육과 (무용)교수



이명순
이사
2차 108인
성균관대 의대 명예교수



원유자
이사
4차 108인
대불련총동문회 상임교문



김순철
이사
6차 108인
전라사라패션 원장



최희영
이사
7차 108인
다도 전문가



조은경
이사
10차 108인
대구수성비비인후과 원장



구윤임
이사
11차 108인
국제교과사



권숙교
이사
11차 108인
김현장 교문



김수향
이사
11차 108인
위덕대유아교육학과 교수



김용란
이사
11차 108인
김인과 병원 원장



서혜신
이사
11차 108인
대진대 교수



박정하
이사
10차 108인
전봉은사 신도회 조직부장



이윤희
이사
10차 108인
이윤희명상선재자요기원 원장



남혜경
이사
11차 108인
부디스트코칭 사니.머리아프
코치

감사



조은수
업무감사
2차 108인
서울대 명예교수



형양자
회계감사
10차 108인
나눔카페 대표



이현숙
이사
11차 108인
경동대 교수



이화신
이사
11차 108인
선림사 무애원 봉사

감사



조은수
업무감사
2차 108인
서울대 명예교수



형양자
회계감사
10차 108인
나눔카페 대표

○ **혜총스님과 함께한 실크로드 순례**

70세에 나의 인생 버킷 리스트 실크로드를 가다 • 글/최희영 7차 108인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9박 10일간 진행한 '혜총스님과 함께한 실크로드 순례'에 개발원 회원 24명과 회원 지인 12명, 총 36명이 참여했다. 순례단은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파미르고원, 부하라 등 실크로드 주요 유적지 10여 곳을 탐방하며 중앙아시아 불교문화와 실크로드 역사를 체험했다. 순례하는 동안 혜총스님은 매일 아침 기도로 참가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축원을 이어갔다.



순례자인 우리가 맨 처음 간 곳은 실크로드 상거래의 공용어인 소구드어(타지크어의 고대어) 문화를 간직한, 타지키스탄의 수구드 역사박물관이다. 박물관에는 희귀한 지크족 자수 제품을 포함해 수구드 지역의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유물과 전시물이 있었다.

셋째 날 들린 타지키스탄의 수도 두산베는 해발 3000m가 넘는 파미르고원을 지나 300km를 5시간 이상 차를 타고 이동한 고산지대이다. 척박한 평원에서 양을 치고 말과 소를 기르며 열심히 자신의 삶을 가꾸어 가는, 고달프고 애뜻한 삶을 생각하게 하는 창밖의 풍경들이 새삼 가슴에 소용돌이치듯 스며들어 코끝이 찡했다.

다음날 실크로드의 효시로 불리는 히소르성으로 이동했다. 대상들의 거래소이자 숙소였던 히소르성은 지금은 과거의 번성이 사라진 드넓은 성터만 남아 세월의 무상함을 말해주었다.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입국해 실크로드 최대의 불교 유적지인 테르메즈로 향했다. 수 천 년 동안 알렉산더 대왕, 징키스칸, 아미르 티무르 등 고대 왕조의 운명과 함께해 온 이 지역에는 동서문화의 융합을 보여주는 흔적이 도처에 있다. 실크로드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로 불리는 부하라로 이동해 말로만 듣던 고구려 사신의 벽화를 보니 시대를 초월한 교감을 느꼈다. 2500년의 세월을 간직한 부하라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을 정도의 관광도시이다. 이슬람교의 성지이기도 한 부하라에서는 이들을 머물며 차슈마 읍과 칼론 미나렛 등 유명한 건축물을 감상했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이자 중앙아시아의 수도라 불리는 타슈켄트는 약 213만 명이 살고 있는 대도시이다. 천산산맥의 지류에서 흘러나온 치르직 강을 끼고 형성

된 이곳은 과거 동양과 서양을 잇는 유라시아 횡단 길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다. 모래바람을 뚫고 사막을 건너 온 대상들은 이곳에서 여독을 풀며 중국의 비단, 서역의 향료 등 각종 문물을 거래하였다.

마지막 날 천산산맥의 지류로서 타슈켄트로부터 약 70km 떨어진 해발 2000미터에 나무가 거의 없는 특이한 모습의 준봉들이 그림처럼 펼쳐진 천간산으로 갔다. 한때 황제국들의 대관들이 이곳에 별장을 가지고 있었고, 사회적 엘리트들 또한 혁명 후에 병든 노동자들을 위해 여름 휴양지를 지었다. 여름에는 인근 차르박 호수에 몰리지만 겨울에는 침간 스키장이 가장 인기 있는 휴양지이다. 침간과 차르박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우즈벡 민족과는 생김새가 좀 다르다. 대부분 카자흐 민족들이다.

고품격 비단길 여행을 마치며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다. 가슴 벅찬 깨달음으로 풍성했던 이 여정을 아마도 나는 언제까지나 고이고이 기억하게 되리라.

히소르성



이스마일 소모니 기념비 앞에서

○ **말레이시아 샤카디타 세계대회에**

한국 승가와 재가 불자 90여 명 참가

제19차 말레이시아 샤카디타 세계대회가 동말레이시아 사라왁 쿠칭에서 열렸다. 2025년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400여 명의 불자들이 모여있으며, 한국에서는 약 90명의 승가 및 재가 여성 불자들이 참여하였다. 법륜사 주지 일문스님이 '한국 비구니 승가 지도력의 역할 변화'를, 동국대학교 남진숙 교수가 '한국의 힙불교 시대, 여성 재가 불자의 새로운 역할과 리더십'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덕산스님의 '인간 정신의 회복: 지금 당신은 육도윤회의 어느 세계에 있는가?', 이청실 선생의 '실크 달항아리', 이현자 선생의 '한국 전통 민화가 워크숍으로 진행되었다. 폐회식에서는 여성불교개발원 1~3차회원들이 모금한 1000달러를 샤카디타 세계대회본부에 전달했다. • 글/정형은_부원장, 샤카디타 코리아 공동대표



○ **운영위원회, 확대운영위원회**

4월 17일, 5월 8일, 6월 12일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4월 운영위원회에서는 108인회 전체 워크숍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대련 원장이 신임 이사들에게 개발원 소개를 위한 역사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또한 경북 의성 산불 피해자를 돕기 위해 부처님오신날부터 2주간 개발원의 전 회원이 모연하기로 결의하였다.

5월 운영위원회의 중요한 안건은 나눔바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차수가 목표로 하는 모금액과 물품의 종류와 조달 방법 등을 논의하였다.

6월 운영위원회에서는 나눔 바자에 대한 보고와 평가가 있었고, 이후에 바자에서 보완할 점을 격의없이 토론했다. 또한 2023년 건물 리모델링을 할 때 만든 옥상 간이 창고가 불법 건축물로 판명되었으므로 올해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에 철거하기로 하였다.



○ **고등동복지회관**

3월 27일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성남시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에서 주가연 사회복지사가 성남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주 사회복지사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따뜻한 마음으로 사회복지지를 실천해오고 있다.

또한 5월 8일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이영란 후원자가 성남시장 표창을 받았다. 이 후원자는 2012년부터 도시락 배달, 심리상담, 미술 프로그램 강



의, 운영위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등동복지회관을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다.

○ (사)지혜로운여성, 길봉사상 수상

3월 30일 (사)지혜로운여성이 한국여의사회에서 시상하는 제34회 여의대상 길봉사상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다문화가정과 한부모 가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그들의 가치와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봉사와 사업을 꾸준히 실천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 시상식에는 정대련 원장, 강영자 생명존중운동본부 본부장, 문윤정 팀장이 참석하였다.



○ 산불피해돕기, 미얀마 지진피해돕기 등 성금

4월 1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산불 피해 돕기와 부처님 오신날 기념 지원사업을 위한 모연으로 총 2,200만원의 성금이 모였다. 논의 끝에, 산불 피해 복구 지원금으로 1,500만 원을 배정하였으며, 군포교 법당 2곳에 각 100만 원씩, 교정교회센터 청소년 지원에 200만 원, 미얀마 여스님을 통해 만달레이 지역 지진 피해 가족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300만 원을 전달하기로 했다.



4월 24일에는 서울 서초동 BTN본사를 방문해 구본일 사장(1차 108인)을 만나 산불 피해 복구 성금을 전달했다.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MOU 체결

4월 15일, (사)지혜로운여성과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영호)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부모의 정서적 문제 해결을 돕고, 지역사회 내 한부모 가족을 적극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 없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 불교여성개발원 금강경기도 1,100일 회향과 1,200일 기도 입재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간 금강경 기도에 동참한 8명의 수행자가 지리산 선림사를 방문해 1,100일 기도 회향과 1,200일 기도를 입재했다.

부처님상담법 수업을 마친 오후 4시에 출발한 순례단은 밤 8시경 선림사에 도착했으며, 보우법사는 채식 저녁을 정성껏 준비해 따뜻하게 환대했다. 13일 새벽예불을 마친 후 금강경 3독 독송을 올리고, 아침 공양 뒤에는 수월암에 올라 차담을 나누며 수행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원래 회향일은 5월 14일이었으나 바자 준비 일정으로 앞당겨 방문했으며, 1,200일 기도는 5월 15일부터 새롭게 입재했다.



○ 도봉방학가람어린이집

5월 12일, 방학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가람 한마음 가족축제 운동회'가 열렸다. 학부모들이 아이들과 한마음으로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이번 행사는 양현정 원장이 도봉구 방학가람 어린이집에서 진행한 마지막 행사로, 부모님과 아이들, 선생님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 「시니어 지혜+AI 상상: 그림책으로 만나다」 프로그램 개강

5월 28일,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인 「시니어 지혜+AI 상상: 그림책으로 만나다」 프로그램이 개강했다. 이번 강의는 총 10회이며, 28명의 수강생이 참여하고 있다.

이지선 강사의 진행으로 열띤 분위기 속에서 수업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규 수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충과정도 별도로 운영 중이다.



○ 강원지원

강원지원(지원장 김옥주)은 매월 첫째 화요일에 원주교도소 재소자를 위한 법회를 통해 교화봉사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월 셋째 월요일에는 명륜복지관 배식봉사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매월 두 번째 화요일 실시하는 강원지원의 정기법회를 통해 평가 및 계획을 세우며 활동하고 있다.

○ 대구, 경북(대경) 지역 모임

개발원 임원진은 6월 8일 불교여성개발원 대구경북(대경)지역모임을 방문하여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대련 원장, 이기향 고문,

이영주 108인회장, 이순재부원장, 이해남 부원장, 정철재 11차 차수장은 직지사 중암에서 도진스님을 만나 차담을 나누고 진령스님 법문을 들었다. 대경지역 이정숙 회장은 점심 공양으로 연잎밥을 준비하였고, 대추정과와 월병을 선물하였다.



중암의 좋은 기운을 받아 올해 12차 108인 회원들이 많이 확보하여 대구 지원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서로 응원한 후, 직지사에 들러 비로전과 대웅전에 참배하고 귀경하였다.



○ 여성불자108인회 임원회의

여성불자108인회는 4월 2일 임원회의를 열어 워크숍 평가에 이어 결산을 보고했다. 워크숍은 차수별 회원과 다문화행복가족센터 회원, 총 101명이 참석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제17회 바자를 위한 홍보문구와 수익 목표를 정하고, 사찰 순례 일정을 확정했다. 회의를 마친 후에는 4차와 10차가 준비한 공양을 함께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5월 운영회의는 바자를 앞두고 전반적인 준비 사항 점검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었으며, 6월 회의는 실크로드 순례에 참여하는 임원이 많아 5월 28일로 앞당겨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는 순례 활동에 대한 평가와 예산 결산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 제17회 나눔바자, 4천만 원 가까운 수익금 모여

108인회(회장 이영주)가 주관하는 바자가 올해로 17회를 맞았다. 5월 10일 열린 미술작품 전시 리셉션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 위원장, 배우 윤정, 수원대 오명희 교수, 불교여성개발원 정경연·김외숙·김선옥 고문과 회원 다수가 참석하여 3년 만에 열린 전시의 개막을 축하했다.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와 불교여성개발원 건물 전관에서 열린 바자에는 108인회 집행부를 비롯해 각 차수, 행복가족센터, 위즈덤합창단 등 13개 팀이 참여했다. 16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종로구청 정문헌 구청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으며,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최준영 동장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

이번 바자의 총 매출액은 44,075,050원이며, 진행 경비, 대여비, 홍보비, 카드 수수료, 수고비 등을 포함한 지출 내역은 3,643,627원이었다. 108인회 임원회의에서는 차수별 순 수익금의 3%인 1,322,250원을 봉사 격려

금으로 회향하여 차수별 커피 타임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종 순수익은 39,109,173원이다. 순 수익금 중 2천만 원은 광장 건립 기금으로 배정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절반씩 지혜장학금과 12차 108인 선정 및 여성불자108인의 날 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 가족지원센터, 불교전통문화한마당 동참

4월 27일(일), 가족지원센터(센터장 고은자)는 이영호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이 대표로 있는 두리모지원협의회 부스 참여를 통해 불교전통문화한마당 행사에 동참했다. 이번 행사에서 한부모가족 인식 개선 운동을 전개하며, 불교여성개발원의 활동을 알리는 한편,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손편지 보내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시민과 가족 등 총 124명이 참여한 뜻깊은 시간에는 이윤희 회원과 가족지원센터 사무국 직원들이 함께했다.



한편, 가족지원센터는 오는 7월 5일과 6일 경기도 가평 대원사에서 9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템플스테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다문화행복가족센터, 길상사에서 법회

다문화행복가족센터(센터장 노인자)는 4월 13일 서울 길상사에서 사찰순례를 겸한 법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회원 12명이 참여하여 사시예불과 점심 공양에 동참한 후, 길상사 찻집에서 담소를 나누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

이어 5월 11일에는 몸 명상, 예불, 그림 그리기 등의 프로그램과 함께, 가족지원센터의 '좋은벗' 회원들과 연

계하여 '나만의 텃밭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며 참여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6월 법회는 15일, 강화 전등사에서 이주민문화축제 '아시아는 친구'행사와 함께 열렸다. 이 자리에는 100여 명의 다문화가족과 이주민이 참석하였다.



○ 명상리더십센터, 지리산 제다체험

명상리더십센터(센터장 김영희)는 지난 4월 21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리산 제다체험을 진행했다. 올해는 천상의 이슬차로 유명한 '효월제다'를 방문해, 직접 차를 뒤는 과정을 5회 반복하는 '5중 5포'를 체험했다.



한편, 5월 26일에는 백경임 동국대학교 명예교수의 「부처님 상담법: 활용 및 실습 심화과정」 10회 강의가 종강을 맞았다.

○ 불교여성연구소, 강의 개설

불교여성연구소(소장 김선숙)는 2025년 상반기 주요사업으로 '지혜를 나누는 당신이 아름다워' 강의를 6월 30일 불교여성개발원 3층에서 진행했다.

○ 생명존중운동본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방문상담

강영자 본부장(6차 108인)은 서울 시내 지역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방문 상담을 가졌다.

○ 지혜아카데미, 새활용공모전 패션쇼로 진행

지혜아카데미(대표 이영미)는 4월 24일 제2장으로 조은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초청해 「통합된 힘, 새로운 길: 사카디타와 재가 여성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사카디타와의 만남이 삶에 가져온 변화

를 주제로 한 강연이 참가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5월 22일 제3강으로는 성민선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가 「불교와 보시: 자선과 사회복지」를 주제로 진행하였다. “20세기 가장 놀랍고 중요한 사건은 기독교의 대안으로 서양에 불교가 소개된 것”이라는



이윤드 토인비의 발언을 소개하여, 한국 불교의 보시 전통이 현대 사회의 나눔과 봉사의 터전이였음을 강조했다.

한편, 지혜아카데미 부설 새활용공모전은 올해 종로구청 문화과의 지원을 받아 패션쇼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새활용공모전은 4월 10일 발대식을 가진 데 이어, 6월 11일에는 패션쇼 참가자를 위한 첫 워킹 수업이 있었다.

○ 위즈덤합창단, 마하마아페스티벌 출전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합창 연습을 하며, 올해는 성불연대에서 주최하는 마하마아페스티벌에 출전할 계획이다.

○ 날란다독서모임, 각화사 번개모임

매주 목요일 온라인에서 독서토론을 이어가는 날란다독서모임(반장 전영숙) 회원들이 4월 9일 경기 광주시 각화사를 찾아 '봄도 읽고, 썩도 뜯고'라는 주제로 번개모임을 진행했다.



각화사 주지 혜담스님과 차담한 후, 참가자들은 봄기운 가득한 사찰 정내에서 직접 썩을 뜯어 부침개를 만들어 함께 나누며 즐거운 봄나들이를 만끽했다.

○ 수익사업단, 오이소박이 바자 기부

최혜경 수익사업단장은 친환경 농법으로 키운 오이로 소박이 32묶음을 만들어 판 수익금을 바자회에 기부하였다.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재정 동참 현황(2025.04.01~2025.06.20)

불교여성광장건립 (온라인)	김영희 80,000	하수경 100,000	안미경 50,000	최수영 30,000
경륜스님(석불사) 1,000,000	남동현 50,000	황은복 100,000	안은덕 1,000,000	최순진 100,000
김선옥(6차) 300,000	노경자 40,000		양정희 100,000	최순희 100,000
김순례(7차) 3,240,000	성영란 50,000	산불피해성금	양현정 100,000	최천숙 10,000
김정희(9차) 150,000	송은주 120,000	강민정(이명순) 50,000	어순아 50,000	최해숙 100,000
김중숙 20,000	이혜남 120,000	강영자 100,000	원유자 100,000	최혜경 30,000
김혜리(10차 조판지부) 1,080,000	여송이 5,000	강원자무량감로회 500,000	유희순 100,000	최희영 100,000
김화영(정대련동창) 1,000,000	한수민 10,000	강원지원(김옥주) 50,000	윤영단 50,000	하수경 100,000
송재영(이명순 모친) 50,000,000	황수경 270,000	계운희(임순덕) 100,000	윤정로 100,000	하지은 50,000
인인자(2차) 300,000		고은자 100,000	윤정윤 1,000,000	한채화 50,000
조현창(김인숙 자) 5,000,000	위즈덤 합창단 회비 및 후원	공명희 50,000	이기항 100,000	함양자 50,000
최윤옥(7차) 90,000	김옥경 90,000	권승오 50,000	이두영 100,000	홍소진 50,000
최창옥(원유자권선) 100,000	송은주 380,000	김경화(남혜경) 50,000	이명순 100,000	홍의경 100,000
최혜경 감사헌공금 1,000,000	신지율 190,000	김광숙 100,000	이미선 50,000	홍형욱 100,000
홍소진(10차) 120,000	안형선 60,000	김만옥 30,000	이성희 100,000	황경자 100,000
황규집(정진희권선) 90,000	윤인숙 90,000	김명순 100,000	이순희 100,000	황수경 200,000
	정재선 280,000	김보원 50,000	이시구 100,000	황순연 100,000
	황경자 100,000	김선숙 100,000	이영미 100,000	황연상(남혜경) 50,000
		김수영 30,000	이영호 100,000	황옥자 100,000
불교여성광장건립(불교르네상스의 꿈 2)_약정 진액	고등동북지관 후원(2.17~5.20)	김숙애 100,000	이윤희 100,000	황의숙 100,000
강순주(원유자 권선) 1,080,000	강민경 10,000	김애주 200,000	이인자 50,000	황치석 100,000
구윤임(11차) 990,000	권해영 10,000	김여주 300,000	이정호 100,000	
권수형(4차) 360,000	김미영 40,000	김연수 100,000	이지은 30,000	바자후원금(제17회 나눔바자)
김선옥 600,000	김민경 10,000	김영희 80,000	이해남 100,000	계미향 100,000
김연수 80,000	김연성 30,000	김옥주 100,000	이화선 200,000	김만옥 50,000
김용숙(7차) 1,080,000	김지현 60,000	김외숙 300,000	이희숙 100,000	김선옥(미술품) 500,000
김인숙고문 55,315,750	김해미 60,000	김용란 1,000,000	임부희 100,000	김순애 200,000
김중숙 120,000	김희정 1,300,000	김진 100,000	장용선 100,000	김영희 100,000
김형숙(정진희 권선) 20,000	박영숙 90,000	김현정 50,000	전국교사불자양령지회 560,000	김외숙 300,000
남동현 990,000	방효정 20,000	김형민 100,000	전영숙 50,000	김인숙(미술품) 300,000
박순(1차) 9,000,000	오해진 30,000	김혜령 100,000	전현정(이영주) 100,000	김주현 50,000
배영숙(10차) 1,080,000	유연서 30,000	남동현 100,000	정경연 100,000	김형인(미술품포함) 600,000
변영숙(김여주자) 1,080,000	유영미 15,000	노숙령 500,000	정대련 1,000,000	양정희(미술품) 1,000,000
손미영(7차) 1,812,000	윤정은 30,000	노인자 100,000	정법신행회 500,000	안기순 100,000
손미원(9차) 80,000	이경미 30,000	류인숙 50,000	정영수 500,000	안은덕 300,000
송옥숙(정진희 권선) 120,000	이영란 60,000	류지영 500,000	정유진 100,000	안경윤지인 1,000,000
유명숙(최혜경 권선) 80,000	장혜연 60,000	문보경 100,000	정은희 200,000	양하영 200,000
이시구 1,080,000	정별 10,000	문윤정 100,000	정재선 100,000	양현정 100,000
이기항(1차) 990,000	정해자 30,000	박갑자 100,000	정진희 100,000	오귀남 125,000
이영주(7차) 4,680,000	최다혜 30,000	박원자 100,000	정철재 100,000	윤정로 200,000
이영희(8차) 580,000	한경숙 60,000	박재성(임소정) 100,000	정해숙 50,000	이영주(미술품) 800,000
인인자고문 1,300,000	한정미 300,000	박정하 100,000	정향숙 50,000	이정숙 100,000
임주연(정진희 권선) 120,000		박종덕 100,000	정형은 100,000	이지은(미술품) 500,000
임지영(정진희 권선) 780,000	금강경 회향보시금/특별장학금	박혜영(남혜경) 50,000	정혜정 50,000	임순덕(미술품) 1,200,000
최윤옥(7차, 최혜경권선) 930,000	김연수 100,000	박혜옥 100,000	조귀자 50,000	전영숙(미술품포함) 400,000
최정경(이영미 권선) 1,080,000	김현미 100,000	박순자 100,000	조명숙 50,000	정경연 300,000
형난옥(6차) 7,080,000	노숙령 100,000	백경임 100,000	조성교(김외숙) 100,000	정대련(미술품) 650,000
홍소진(10차) 960,000	박종덕 100,000	백남열 100,000	조우상 30,000	정영수 1,000,000
황규집(정진희 권선) 120,000	서예석 100,000	서우림 200,000	조은경 50,000	조명숙 100,000
	성영란 100,000	서해정(조정숙) 100,000	조은수 300,000	조정숙(6차) 500,000
기타후원금 온라인	송은주 100,000	성민선 1,000,000	조은수 100,000	최정원 100,000
(다문화봉사단 / 교정교회센터 / 우바이예찬 / 재소지영차금 / 기타)	양정희 100,000	성영란 100,000	조재란 200,000	황경자 100,000
강원지원(사할순례후원) 300,000	이순례 100,000	송승자 50,000	조점선 30,000	황순연 434,000
귀빈여행사(양애자) 40,000	이기항 100,000	손순희 100,000	조정숙 100,000	8차수 후원 200,000
김여주 120,000	이정호 100,000	송은주 100,000	조정숙(6차) 50,000	11차수 후원 50,000
고부진 40,000	정재선 100,000	송재영(이명순어머니) 100,000	조희금 50,000	
고재은 50,000	정철재 100,000	신다영(남혜경) 200,000	조희금 100,000	
김선옥 150,000		안기순 100,000	차원준(최비안) 50,000	